



올해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광주는 교육이다' 기획전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근대역사실 모습. <광주일보 자료>

'광주는 교육이다' '인문학 산책' 등 다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올해 계획 발표...역사·문화·교육 초점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도 운영

'광주는 교육이다',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 '영산강에서 만나는 남도 문화', '인문학 산책', '담방청 명분교실' ...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최경화·박물관)은 올해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개관 36년을 맞은 박물관은 중장기(2013~2027년) 발전 계획을 토대로 문화도시 광주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오는 9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최종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예산 확보 등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물관은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교육'을 소재로 한 기획전이다. 오는 4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예정된 기획전은 광주의 정체성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행사다.

'광주는 교육이다'를 주제로 펼쳐지며 광주 교육 관련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된다. 교육사 일편의 관점에서 교육의 의미와 전근대사회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공구하는 한편 조선시대 광주교육을 학교와 서당 등의 공간을 통해 살

펴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소주제가 눈에 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 '학교의 등장', '학생의 이름', '광주와 교육', '에필로그-광주 100년 학교 zone', '체험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박물관은 흥미로운 전시와 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 광주의 역사를 의미있게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3월부터 진행되는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먼저 3-5월(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제28기 박물관대학이 열린다. '영산강에서 만나는 남도 문화'를 주제로 남도의 짙은 영산강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펴본다.

3월부터 6월까지(매주 화·수 오전 10시 30분)는 마한유적체험관 유아체험실에서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 '신장동 유물 액자', '조물조물 신장동 모양 찍기' 등이 진행된다. 신장동 유적 출토 유물의 의미와 쓰임새 등을 알아보고 이를 매개로 장신구 등을 만들어보는 놀이체험이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어린이 문화교실'(4-6월/9-11월)은 전통 예술 작품을 관찰하고 다양한 응용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다. 7월

여름방학에 펼쳐지는 '어린이 역사문화산책'은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다. 우리지역 선사·고대 토기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토기 성형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장동 토기제작공방'과 고대 의복의 변천과정과 다양한 직물의 제작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나는 신장동 디자이너'도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과 강좌도 마련돼 있다. 4-5월과 9-10월(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각각 신장동 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유물의 제작 방법을 토대로 생활용품을 제작하고, 옷칠유물에 대한 이론수업과 전통기법을 활용한 옷칠 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박물관 인문학산책은 9-10월에 열린다. '남도 사람들의 삶과 이면'을 주제로 역사, 철학, 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남도인의 생사관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11월에는 시민문화강좌로 '광주의 원형, 마한에서 찾다'가 진행된다. 광주를 포함한 영산강 유역의 고대국가 마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심도 있는 강좌가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박물관은 지난해 개관한 마한유적체험관과 아울러 오는 2024년 개관을 앞둔 분청사기전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온 가족이 함께 '판소리 감상회'

광주시립창극단 주최... 26일·3월26일 국립광주박물관

우리네 판소리를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됐다.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공연 '판소리 감상회'가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두차례 열린다. 공연의 사회는 윤중강 국악평론가가 맡는다.

고수의 북 장단에 맞춰 긴 서사를 소리와 아니리, 너름새로 구현해 우리나라 시대 정서를 나타내는 판소리는 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예술로 잘 알려져 있다.

먼저 26일(오후 3시)에는 광주시립창극단 창작부 박운중 상임단원의 소리와 김준영 상임단원의 북장단에 맞춰 판소리 적벽가가 울려 퍼진다. 중국 소설 '삼국지연' 중 적벽대전 장면을 차용해 만든

적벽가는 힘찬 고음과 무겁고있는 저음의 대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장단을 넘나들며 변화하는 기교, 뛰어난 감정표현 등을 엿볼 수 있다.

3월 26일(오후 3시) 공연에서는 양은주 명창과 김규형 명고의 북장단에 맞춰 창작 판소리 '열사가'가 펼쳐진다.

열사가는 1945년 식민지 시기의 상징적 영웅인 이준과 안중근, 윤봉길 열사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판소리다. 일제의 부당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가 담겨있으며 세 명의 열사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해 들을 수 있다.

공연은 전체 관람가로 전석 무료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의 시간'

프로젝트 밴드 '카스타냐 탱고', 18일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문화재단이 새봄맞이 탱고음악으로 겨우내 응크린 몸을 깨운다.

프로젝트 밴드 '카스타냐 탱고'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의 시간'이 18일 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열린다.

무대에서는 탱고음악의 거장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곡에 맞춰 역동적인 아르헨티나 댄서들의 춤과 카스타냐 탱고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다. 또 1910년부터 현대에 걸친 레퍼토리의 탱고 연주, 음악에 담긴 이야기 등도 함께 펼쳐진다.

'잘 여문 밤'이라는 뜻을 가진 '카스타냐 탱고'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이 이끄는 팀으로, 비올리스트 이진규, 반도네오니스트 임시내 등과 아르헨티나 정통 탱고 댄서 미구엘과 펠리 칼보가 함께한다.

관람 신청은 남도소리울림터 누리집에서 예약 가능하며 공연과 관련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1-280-5828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피아노 선율과 함께 만나는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리투아니아 출신 '주보바스 듀오' 공연... 18일 광주시립미술관

리투아니아 출신 요나스 메카스 탄생 100주년 기념전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과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연계한 피아노 콘서트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18일 오후 3시 분관 로비에서 콘서트 '울려 퍼지는 바다의 색: 드뷔시와 슈틀리니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한리투아니아대사관이 리투아니아 재건 105주년을 기념, 서울 명동성당에서 20일 개최하는 연주회에 앞서 광주에서 먼저 선보이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드뷔시와 슈틀리니스가 작곡한 교향곡을 결합해 네 손으로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다. 드뷔시는 1905년 '라 메르(La Mer·바다)'를 작곡, 피아노 네 손 연주가 가능하도록 편곡했다.

리투아니아 출신 작곡가 슈틀리니스는 1907년 교향시 '바다'를 완성했다. 리투아니아는 1990년까지 소련의 점령 하에 있던 탓에 슈틀리니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연주되는 '바다'는 지금까지 악보 형태로만 남아있던 이번 연주회를 위해 복원·편곡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 클래식 작곡가 이철우

(테이비드)의 피아노 연주곡 '내 삶과 영혼의 아름다운 세상 No. 2 소리 2014'도 함께 들려준다. 연주자는 소나타 주보비네네와 로카스 주보바스 부부로 구성된 리투아니아 피아니스트 그룹 '주보바스 듀오'다.

특히 로카스 주보바스(리투아니아 음악아카데미 교수)는 슈틀리니스의 증손자로 슈틀리니스의 피아노 작품들을 녹음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소나타 주보비네네(왼쪽)와 로카스 주보바스 부부.



오는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요나스 메카스+백남준:나의 친애하는 친구들' 전 모습.

2023 광주시립예술단 신규 비상임단원 모집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관장 신민석)이 '2023 광주시립예술단 신규 비상임단원'을 모집한다.

문예회관의 상반기 결원은 교향악단 5명, 창극단 2명, 발레단 16명, 국악관현악단 7명, 합창단 5명, 소년소녀합창단 3명, 극단과 오페라단은 각

각 감독 결원으로 1명씩이다.

모집은 극단과 오페라단을 제외한 6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24명을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교향악단 연주자 2명과 창극단 병창 1명, 발레단의 무용수 11명,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자 5명, 합창단 운영실장 1명과 연주자 1명,

기획홍보 1명,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실장 1명과 기획홍보 1명이다.

모두 비상임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이달부터 4월까지 각 분야별로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실기,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운영실장의 경우 10일부터 15일까지 총 2명을 모집한다. 발레단은 총11명(전국 8, 지역 3)을 선정하며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피아니스트 장지원 독주회

28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장지원(사진)이 2월 마지막날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장지원 피아노 독주회가 28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장지원은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전주곡'과 '미뉴에트', '달빛', '파스피에' 총 4곡을 선보인다. 다음으로 가브리엘 포레의 '벚꽃 1번'과 '벚꽃 4번', '야상곡 13번'을 연주한다. 이어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겨울 중 '나방'과 '슬픈 새', '바다 위의 작은 배', '광대의 아침 노래', '종의 골짜기' 등 다섯 곡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 출신 장지원은 1999년 호남예술제 금상을 시작으로 세차례의 은상을 수상했으며 11세에 금



로 재학 중에 있다. 전석 1만 원. 문의 010-2918-6454.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호문화재단 영재 아티스트로 선발, 데뷔 리사이틀을 가졌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한 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석사과정과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한국 예술종합학교 전문사 반주와 우수 장학생으